

“어르신 돌보며 봉사의 기쁨 나눠요”

창립 20년 맞은 금강봉사회... 창립멤버 12명 꾸준히 활동

불자들의 봉사모임 금강봉사회(회장 김정이)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故진철 스님(前통도사자비원장)의 권유로 1995년 도반 12명이 함께 뜻을 모아 창단한 이래 20여 년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금강봉사회 회원들은 7월 7일 울산 미타암에서 만났다.

신행활동을 병행하며 자비봉사를 펼치고 있는 금강봉사회는 이날도 도반들과 함께 미타암에서 기도를 마쳤다고 했다. 지금까지 통도사자비원과 용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성우원, 천마재활원, 성분도 아버지집 등에서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펼쳐왔다.

현재는 25명의 정기회원이 활동 중이며 창립 멤버인 12명의 회원들이 지금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운 사실이다.

한영옥 초대회장은 20년 동안 봉사를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통도사 자비원장이었던 진철 스님이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 “금려사 산하 유지원 개원식 자리에서 처음 스님의 법문을 듣고 직접 통도사로 찾아가게 되었죠. 스님은 가정과 사회에 배운 바를 실천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셨어요.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스님의 법문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금강봉사회는 현재 통도사 자비원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어르신을 찾아 목욕

봉사와 무료 급식 등의 자비 봉사를 펼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어르신들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는 금강봉사회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은 통도사 자비원에서 50여 어르신에게 목욕봉사를, 셋째 주 화요일에는 용호종합복지관을 찾아 140여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하인자 회원은 “몸으로 하는 봉사이다 보니 피곤할 법도 한데 봉사를 다녀오면 마음이 더욱 환해진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

故진철 스님 권유로 95년 창립

통도사 자비원 목욕 봉사도 시작

용호복지관 급식 등 자비나눔 실천

“이웃 사랑, 가족 행복으로 이어져”

이 자연스럽게 배려가 생기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부드러워지니 행복이 절로 찾아오는 것 같다”며 봉사의 기쁨을 이야기한다.

이밖에도 가장 보람된 봉사를 찾으라고 하면 수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난 조순 가정의 자녀들을 5년 동안 돌본 것이다. 김정이 회장은 “할머니랑 살고 있는 남편인데 할머니가 아파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5년 동



1995년 창립한 금강봉사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용호복지관 급식 봉사 후 기념 촬영 장면.

안 빠짐없이 반찬과 쌀 값치 등을 5년 동안 보내주었는데 큰아이는 어려웠던 형편을 극복하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특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다”고 감회를 전했다. 또한 회원들 각각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보시금을 내 기금을 조성, 어버이날 연말 명절 때마다 어르신들의 대중공연 및 보시금으로 기부해오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금강봉사회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봉사대상, 통도사 자비원장상, 용호종합복지관 감사 표창장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금강봉사회는 각 봉사자들이 가정

으로 돌아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보람을 보이는 것도 주요덕목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매년 창립기념식에는 가족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박민례 회원은 “이런 자리를 가지니 봉사하려 간다고 하면 신랑과 가족들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더욱 잘해준다. 이해심이 많아진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자주 듣는다”고 전했다. 또한 안명석 회원은 “봉사하는 마음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남을 배려하고 그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더욱 뿌듯해한다”며 봉사의 보람을 말한다.

금강봉사회는 “앞으로 진철 스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며 의지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 공부 회향은 생명나눔 실천으로”

선암사 원효불교학당 졸업생 장기기증 약속

부산 선암사 원효불교학당 1기 졸업생 42명 중 36명이 졸업을 기념해 장기 기증 희망등록에 서약하며 생명나눔실천에 동참했다. 한 단체의 85%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암사(주지 원범)는 6월 30일 경내 대웅전에서 원효불교학당 1기 졸업식 및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원범 스님은 “불교 공부의 회향은 나눔 실천일 것”이라며 생명나눔실천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 이 자리에서 졸업생들은 직접 장기 기증 희망등록에 서약하며 동참했다.

앞으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각 사찰의 불교대학, 불교단체의 행사장을 방문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부



선암사 원효불교학당 졸업생 85%가 졸업식과 함께 장기 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산은행과 연계해 온라인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부산은행 사회공헌 홈페이지 ‘행복한 은행’에 접속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선정한 난치병 환자에게 쾌유를 응원하는 댓글을 다는 방식이다. 응원 댓글 1회당 1000원의 기부금이 환자에게 전달된다.

하성미 기자

부산박물관 강좌 ‘불교미술을 바라보다’

범어사 특별기획전 연계해 진행

부산시립박물관은 범어사와 함께 공동 개최하는 특별기획전 ‘천년고찰 범어사’와 연계해 7월 21일~24일 박물관 대강당에서 역사문화강좌, 가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제31기 역사문화강좌로 진행되는 ‘불교미술을 바라보다’는 △불교미술의 흐름 △한국 불교공예의 아름다움과 의미 △통일신라의 불교조각 △불교미술의 정수, 고려불화 △고려불상의 미 △조선불화 △조선 후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등으로 나뉘어 강좌가 진행된다. 접수는 7월 13일~17일까지이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 200명이며 모집대상은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부산박물관에서는 다가올 여름 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15년

여름방학 가족박물관교실 ‘나는 박물관 명탐정-범어사를 찾아라’를 부산박물관 교육실에서 연다. 기간은 8월 4일~13일 동안 매주 화·수·목이며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부산박물관은 범어사 불교 유물에 대해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부산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개최하고 7월 29일 오후 6시 ‘큐레이터와의 역사나들이’를 진행한다. 큐레이터와의 역사 나들이는 ‘부산박물관에서 만나는 금정산 범어사’라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한편, 특별기획전 ‘천년고찰, 범어사’ 전시회 개막식은 7월 20일 오후 4시 부산박물관 부산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에 앞서 오후 1시 30분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 ‘범어사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박은경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의 초청강연회도 열린다. 전시는 9월 13일까지다. (051)610-7141

하성미 기자

표충사 삼층석탑 진신사리 420년 만에 제자리로

7월 3일, 이운식 봉행

임진왜란의 침입을 피해 이운한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진신사리가 420년 만에 밀양 표충사로 돌아왔다.

표충사(주지 정산)는 7월 3일 진주 두방사에서 표충사 경내로 진신사리 6과를 이운하고 이운식을 가졌다. 표충사 경내로 돌아온 진신사리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침입을 피해 승병이 주둔했던 진주 법문사로 옮겨졌다. 그 뒤 법문사 폐사 후 두방사에서 진신사리를 이운해 보존해왔다.

이날 이운식은 표충사 주지 정산 스님, 총무 자허 스님을 비롯해 표충사 사부대중 100여명이 일주문에서 진신사리를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두방사 주지 대경 스님과 신도 50여명이 함께 옮겨온 진신사리를 건넌받은 주지 정산 스님과 사부대중은 표충사 삼층석탑을 돌며 이운을 축하했다.

현재 표충사 대웅전에 봉안된 사리는 당분간 대웅전에 공개할 방침이다.

표충사 주지 정산 스님은 “표충사 석탑을 해체 보수했을 때 찾은 백자사리함에는 사리가 없었다”며 “그동안 빈 사리함의 석탑에 예불을 올리면서 서글픔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으나 두방사의 협조로 금년에 이렇게 다시 재 봉안하게 되어 호국성지가 적멸보궁으로 위상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쁨을 전했다.

앞으로 표충사는 문화재청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리를 삼층석탑에 봉안하고 법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신라시대 조성됐던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은 1995년 해체보수 당시 비어있는 백자 사리함만 발견됐으나 최근 진주 월아산 두방사 탑에서 발견된 사리 23과가 표충사 사리로 밝혀졌다. 두방사 탑에서 함께 발견된 연기문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임진왜란 당시 진주 두방사로 옮겨졌던 표충사 삼층석탑의 진신사리가 42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사진은 이운식 장면

영정사(표충사의 옛 사명) 3층탑에 모셔진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자 말사였던 진주 월아산 동쪽 법문사에 옮겨 모셨으나 진주까지 왜군이 밀려들자 월아산 남쪽 두방사

로 다시 숨겨 모셨다’라고 적혀있다. 그동안 표충사 사리에 대해 왜군의 도굴에 대비해 다른 사찰로 옮겨졌다는 추측이 있었을 뿐이었다.

하성미 기자

불지사, 7월 9일 만불점안식

통도사 부산 포교원 불지사(주지 상진)가 ‘만불점안식’을 봉행했다. 불지사는 7월 9일 불지사 만불전에서 미타암 주지 산옹 스님을 증법사로 주지 상진 스님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안식을 진행했다.

사부대중은 자신이 올린 부처님의 명호를 확인하며 환희심에 기뻐했다. 아울러 다른 사찰로 옮겨졌다는 추측이 있었을 뿐이었다.

각에 들어가 기도를 하며 수행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불지사는 만불전 개원도 함께 진행했다. 만불전은 300여 평으로 지난 2014년 3월 착공을 시작한 뒤 연말에 완공했다.

앞으로 불지사는 “도심 포교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며 기도 수행 공간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화/제/의/신/간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리며 돌풍을 일으켰던 남산스님 - 10년만에 「기적의 패치요법」 출간

남산스님의 기적의 패치요법

패치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아무리 심한 기침과 콧물 감기도 패치를 붙인 후 3분이면 뚝!

(본문 중에서)

술을 마신 다음날 주독으로 심한 두통과 함께 오는 설사와 몸살도 패치 한 장이면 말끔!

(본문 중에서)

오래된 위장병도 패치요법 15일이면 통증이 사!

(본문 중에서)

저서
위장병 양노병 왜곡하는가? / 기침수법 / 기적의 패치요법 / 수족온욕법 / 대변의정 / 해독수

약력
前 녹색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 전문교수 / 前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교수 / 前 보림재단 지역사회 서비스 기획팀 인안치료 자살예방장 / 現 한국대체 의학연구소 소장 / 現 동국 의과대학 전통의학과 교수 / 現 아치리과대학교 의학박사

발행
MBC 화제전중 / 늘라운 세상 / 여성교양 강좌 / SBS 동기생전류 / 모닝와이드

정가 10,000원 (포켓북)

※기업체/포교원/사찰 패치요법 무료강연 신청 받습니다.(50명이상)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주문전화 080-300-9928